문화광장

위대한 대한민국

장 수 명
동화작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다. 다름 아닌 양분화된 집회 소식이다. 어쩌다 지금 우리는 이토록 양분화된 사회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 위기인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한 것인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러다가 나는 답을 찾았다.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본질 가운데 있는 나라구나!'

민주주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 시간이 소요되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양극화된 집회 역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견고한 민주주의 본질을 보여주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 정부의 모습인 것이다. 만약 독재 정부였다면,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이런 모습은 가당키나 했겠는가?

나는 답을 찾는 데 오래 걸렸다. 처음엔 양분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격앙되고 편협된 사고로 접근했다. 그런데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를 다시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았다.

책 좀 읽었다 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우리나라에서는 '총, 균, 쇠'의 작가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나와 세계'(2016) 이후 그의 60년 문명연구의 총결산이자 미래의 기회편이라 불리는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를 출간했다.

거대 담론을 논했던 전작들과 달리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논했다는 점, 국가별 위기를 분석하고, 국가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특기인 비교연구,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안한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예전에 비해 점점 통찰력이 무뎌진다고 하지만, 그의 나이는 졸수라 불리는 아흔 살이다. 모든 사람을 수긍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세계적 석학의 탁론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염려스런 마음으로 또 다른 그의 역작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 출간되자마자 구입해서 읽었다. 나라별 역사적, 지리적 요소에서 환경적,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와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정치와 심리적 요인이 어떻게 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는지를 비교연구 해 놓았다.

물론 나의 부족한 이해력 탓인지 그의 책이 다소 난해하고 쉽게 수긍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세대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어떻게 변혁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지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그 무엇보다 하루속히 이 어수선한 정국이 질서를 되찾고, 고공으로 치닫는 물가와 팍팍한 서민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바란다.

사설

중산간 개발 기준, 철저한 검증·논의해야

맞춤형 특혜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기 때문이다.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제주도는 중산간 개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했다. 다만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게 골격이다. 논란의 쟁점은 2구역이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2구역으로 편입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구역에서는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하에 관광휴양형 시설 등을 3층 이내 규모로 지을 수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해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환경단체는 중산간 보전 의무를 포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중산간 난개발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가결시켰다고 규탄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애월읍 상가리 일원에 추진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다. 2구역에 포함되지만 골프장이 없는 리조트여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논란이 도민사회로 확산되자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결단을 내렸다. 본회의에 부의된 변경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여론이 분분한 현안인 만큼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중산간은 생태축으로 길이 보전해야 할 제주의 유산이다. 현장 검증과 공청회 등을 거쳐 현명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인구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루 생활인구 85만명과 출산율 1.09 달성 등을 목표로 한 인구 정책을 내놨다. '담대한 혁신, 품격 있는 포용,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대전환'이라는 비전의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이다. 인구감소 위기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인구행복도시 제주 도민실천단'도 출범시켰다.

제주도의 계획은 친환경 신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 제주형 생활인구 선순환 생태계 구축, 수요 탄력적 정주인구 지원 체제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14개 핵심 43개 실행과제가 추진된다. 항공우주산업 일자리 1450개와 에너지 전환 일자리 5만2000개 창출, 신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등의 정량목표가 제시됐다. 먹고 살만 할 여건조성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은 약 1조55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절반가량은 도비로 충당한다. 예산 확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예산만 있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서 청년층 유출 방지와 저출산, 고령화 해결 등은 버거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물러섬이 없이 배수진을 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등 선제적 대응을 필두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챙겨나가야 한다. 각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실천단의 활동 역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안이 이뤄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무연분묘의 토지 효율성 위한 해결책

김 수 환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사회가 점점 도시화되며 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돼가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 관리되지 않은 무연분묘는 토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연분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일정 기간 이상 관리되지 않은 분묘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무연분묘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 이를 데이터화해 보다 효율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토지 효율성을 올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도 매년 4월 읍면동과 합동해 무연분묘 현장조사와 신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무연분묘를 조사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연분묘 문제는 단순한 묘지 관리 차원을 넘어 토지 활용과 도시 발전, 환경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방치된 무연분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면,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올라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3년 연속 산불 없는 해 만들자"

이상 기후로 산불 대형화

○…최근 이상 기후로 산불이 대형화하고 동시다발하는 추세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3년 연속 '산불 없는 해' 달성을 목표로 설정.

지난달 28일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5~5월 15일)을 맞아 '2025년 제주도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한 제주도는 참석 기관별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공유하고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지원 방안을 협의.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의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모든 유관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와 등산 시 안전 수칙 준수로 산불 없는 제주 만들기에 전 도민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로컬여행 할인 효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관광객 유치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3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 참여해 다채로운 제주 로컬여행 상품을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

제주에서 맛볼 수 있는 미식 체험, 트레일과 백패킹 등의 아웃도어 상품, 명상과 다도 등의 힐링 여행 프로그램 등 제주만의 찐 로컬여행 43선을 선보이며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 관광 수요 확대를 모색.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여행 캠페인 등의 참여를 통해 제주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 오은지기자